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장, iblee@cdi.re.kr)

목 차

< 요약 >

- I. 국제꽃박람회의 이해
 - II.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현황과 파급효과
 - III.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계획
 - IV. 국제꽃박람회 연계 지역발전 전략
- 참고 문헌

《요 약》

- 국제박람회 개최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전 세계에 주최국가의 홍보 및 이미
지 업(Image Up)이 이루어져 국제 사회에서 개최국의 위상이 제고되고, 국
제교류의 활성화, 수출확대, 관광객 증가 등 수량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된다.
- 국가문화적으로도 박람회 개최는 국민들의 욕구(Needs)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개최국 국민으로서의 공동체 연대의식 강화, 의식 및 문화수준을 높이는 전
기를 가져다준다.
- 또한, 꽃박람회 개최지역은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상품이 알려지면서 지역특
성산업, 관광산업 진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박람회 개최준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SOC 등의 확충은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뿐 만 아니라 고용창출 확대로 이어지고, 전 세계 교류확대와 정보교류는 지
역의 인적자원을 고급화시켜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람객은 1,646,084명으로 집계되어 총 24일간 당
초 목표인 72만 명의 약 2.3배를 초과하는 성과를 보였다.
-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 효과로 지역 화훼산업의 재배기술력 제고 및 화훼 판매의 매출
증대효과를 가져오고, 박람회장의 명소화를 통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
광벨트화로 관광·서비스 산업의 발전효과가 있었으며, 나아가 연관산업의 파
급효과를 통해 지역의 고용증대 및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다.
 - 화훼수출 기반 확대 : 박람회 기간 총 4,617천불 수출계약
 - 충남지역 승수효과 : 총 소비지출액은 약 827억원, 분야별 음식업 164억원,
소매업 121억원, 도로여객운송업 208억원, 숙박업 116억원, 기타 문화오락
서비스업은 216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 4,400억원, 소득유발 1,000억원, 부가가치유발 2,000억원, 고용창출 9,000명
- 국내 화훼기술 선진화 : 신품종 개발(9화종 110품종), 개화시기 조절 등 농가에 신기술 보급
- 낙후지역 개발 촉진 : 도로확충·항만 보강(국비 1,348억원 투자), 환경기초시설 등 SOC 확충
- 국제교류 확대 및 도정역량의 국제수준 제고 : 꽃박람회와 함께 국제환경포럼, 국제지적포럼 개최
- 그리고, 지역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분석으로는 관광개발 효과, 지역개발 효과, 군민의식 함양효과 등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광개발 효과 : ‘유명 관광지로 인식시킴’, ‘여름철 관광객 증가’, ‘호텔 및 숙박시설 증가’
 - 지역개발 효과 : 안면도를 비롯한 태안의 ‘전체적인 미관 개선’, ‘도로개선’, ‘안면도(태안)의 화훼산업 발전’ 등.
 - 군민의식 함양효과 : ‘자부심 강화’, ‘질서·친절의식이 높아짐’ 등
 - 문화·예술 진흥 효과 : ‘문화·예술행사 증가’, ‘문화의식 수준 향상’ 등
 - 꽃문화 향상 기여도 : 다양한 매체에 노출면서 범국민적 꽃 문화 교육효과에 기여
- 이와 연계하여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과 연계한 지역의 발전전략으로는 꽃박람회를 서해안지역 이미지 전환의 기회로 활용하고, 꽃박람회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로 태안과 서해안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며, 꽃박람회를 연계한 지역 화훼산업의 육성과 꽃박람회 홍보를 극대화한 충남 관광산업의 활성화, 태안의 생태·환경관광의 전략적 지원과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I. 국제꽃박람회의 이해

1. 박람회(exposition)의 개념

- 박람회는 산업, 과학, 예술 등 인간의 다양한 활동 성과물을 일정한 주제를 통해 종합적으로 기획, 전시하여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사로 산업진흥, 무역확대, 기술발전, 국가 간 이해증진은 물론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를 도모하는 종합이벤트이다.
-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International Exhibitions) 제1조 의하면, “박람회란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대중의 계몽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를 말한다. 이는 문명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전시할 수도 있고, 특정 또는 여러 분야에서 인류 노력으로 성취된 발전을 전시하거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줄 수도 있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 역사상 최초의 박람회는 BC 5세기경 페르시아 아하스에로왕이 제국의 힘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 각국을 초청하여 6개월간 왕궁 안에 여러 가지 보물을 전시한 것이며, 동양에서도 중국 수나라의 양제가 서역, 일본, 한국 등 각국의 진귀한 물건을 전시하고 인근에 유원지, 식당 등을 완비하여 대행사를 개최한데서 유래한다.
- 근대적 의미의 박람회는 1851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공업국이었던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알버트공의 주창으로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 열렸다. 수정궁박람회로도 불리는 이 행사는 근대공업, 현대적 예술의 출발점이었으며, 동시에 모든 근대 국제 행사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다.

- 대중들의 크나큰 호응에 의한 수정공박람회의 대성공에 자극을 받은 세계 각국에서는 박람회를 산업발전의 전기 마련과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호기로 인식해 경쟁적으로 개최되었고, 급기야 무분별 개최로 박람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28년 국제박람회협약이 체결되었고, 실행기구로 국제박람회 사무국(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이 창립되어 협약이행을 관할하였다.

2. 박람회의 유형과 꽃박람회

1) 국제공인

- 박람회에 대한 국제공인은 원칙적으로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International Expositions)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국제박람회사무국(BIE :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에서 가입한 회원국들의 합의 또는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은 1928년 세계 31개국 대표가 파리에서 박람회의 가치제고와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결과를 채택하고, 이후 5차례 개정되었다.
- 협약이행을 관할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설치된 국제박람회사무국(BIE)에는 세계 45개 회원국이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도 '93 대전EXPO를 개최하기 위하여 1987년 가입하였다.
- 꽃박람회는 국제박람회사무국(BIE)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제원에생산자협회(AIPH)의 「국제원예박람회 조직에 대한 규정」상의 조건 및 절차에 의해 4가지 유형(A1,A2,B1,B2)의 국제꽃박람회의 개최에 관한 국제공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중 대국제원예박람회(A1형)는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제박람회 사무국의 인정승인을 받게 된다.

- 꽃박람회 개최의 일반적 절차로는 박람회 계획수립 후에 개최희망을 AIPH에 통보하고, 집행위원회 및 총회심의에 따라 조사단이 결성, 현지조사 후 공인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2개월 이내 다른 경쟁신청이 없으면 개최를 허가한다.
- 또한 이러한 준비 및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예비기간을 위해 A1형의 경우 개최 10년, A2형의 경우 개최 4년 이전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이러한 엄격한 조건과 공인절차로 인해 국제 공인꽃박람회의 가치와 희소성, 질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고, 각국의 유치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 꽃박람회 개최유형

(1) 개최형식에 따른 분류(AIPH 규정상)

구분	A1 대국제원예박람회	A2 국제원예박람회	B1 해외참가자가 있는 원예박람회(장기간)	B2 해외참가자가 있는 원예박람회(단기간)
빈도 회수	· 1년 1회 이상 개최 금지 · 국가 당 10년 회 이상 허용 금지 · 빈도수는 BIE 동의 하에 확정	· 1년 최대 2회 개최 가능 · 동일 대륙 개최시 개막일 간격 3개월 이상 필요	· 1년 1회 이상 허용 금지	· 1년 최대 2회 개최 가능
기간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최소 8일 · 최대 20일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최소 8일 · 최대 20일
공인 신청	· 개막일전 6~12년	· 개막일전 4년	· 개막일전 3~7년	· 개막일전 2년
특별 규정	· 원예 모든 부분 · 면적 : 50ha이상 -건물최대면적: 총면적의 10% (실내전시관제외) -해외참가자 면적 · 국제참가자 최소 10개국 이상 · 재정보증금 20,000스위스프랑 · BIE 등록	· 최소면적:15,000㎡ -해외참가자 면적 2,000㎡ 이상 · 국제참가자 최소 6개국 이상 · 재정보증금 10,000스위스프랑	· 최소면적:25ha -해외참가자 면적 총면적의 3%이상 · 재정보증금 5,000스위스프랑	· 최소면적:6,000㎡ -해외참가자 면적 600㎡이상 · 재정보증금 2,500스위스프랑

- AIPH의 분류에 따른 공식적 유형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 대국제원예박람회인 A1형, 단기 실내중심의 국제원예박람회인 A2형, 정원중심의 전시가 이루어지는 B1, B2형이 있다.

(2) 개최목적에 따른 분류

- 실제로 공식유형과는 달리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동일유형의 꽃박람회라 하더라도 그 특성이 각기 다르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 첫 번째 유형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화훼 선진국에서 주로 개최되는 유형으로 자국의 화훼산업 발전 수단으로 민간협회가 중심이 되어 박람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중앙 및 지방정부가 보조하여 원예업체의 개발된 신품종 및 원예종 화훼류의 수출촉진을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 네덜란드에서 매 10년마다 개최되는 플로리아드는 '82년의 경우 세계17개국 이상이 참가하여 460만명이 관람했고, 2억 달러 이상의 파급효과 및 관광산업 수익에 기여하였고, 83년 독일에서 개최된 뮌헨꽃박람회는 20개국 이상이 참가 7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바 있다.
- 두 번째 유형은 일본 오사카(1990년), 효고(2000년), 독일 쾰른키르헨(1997년) 등처럼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유형으로 오사카는 시 개설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활용 꽃박람회장을 조성하여 세계 82개국의 참가와 2,3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대성공을 거두었고, 현재 오사카의 명물 쓰루미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효고는 95년 고베 대지진 및 간사이 공항 건설시 토취장으로 활용해 황폐해진 아와지섬을 꽃박람회 행사장으로 활용 생태계를 복구하고, 인근의 명석국영(明石國瀆)해협공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국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 독일은 쾰른키르헨은 폐광지역인 루르지방의 경제적 재개발과 라인강의 환경복원사업인 엠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어 2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박람회장 및 지원 시설설치로 폐광의 이미지를 탈피하였고, 행사후에는 노르트슈른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 및 관광자원화에 성공하였다.
- 세 번째 유형은 중국 곤명(1999), 필리핀(1998) 등의 유형처럼 꽃박람회를 개최하여 개발에서 소외된 오지의 지역개발 촉진 및 계기 홍보로 지역 천혜의 오염되지 않은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산업 및 화훼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중앙정부 수도로 대규모 사업화하여 시행하는 유형이다.
- 필리핀 Florikultura는 화훼산업진흥과 91년 대폭발로 세계 기상이변을 일으켰던 피나투보 화산 폭발의 복구와 이를 활용한 관광특수를 누리기 위해 추천되었다. 이때 조성된 박람회장인 크리스마스마을은 필리핀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가 되었다.

3. 박람회 의의와 지역파급효과

- 국가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박람회 개최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에 주최국가의 홍보 및 이미지 업(Image Up)이 이루어져 국제 사회에서 개최국의 위상이 제고되고, 국제교류의 활성화, 수출확대, 관광객 증가 등 수량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되고 내수도 진작시켜 연관산업 자극에 따른 질적고도화와 심화가 이루어진다.
- 국가문화적으로도 박람회 개최는 변화와 새로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욕구(Needs)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개최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국가 전체에 왕성한 창조정신과 혁신의욕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공동체 연대의식 강화, 의식 및 문화수준을 높이는 전기를 가져다준다.

- 박람회에 참여기업(공식후원자, 공식공급자, 공식상품화권자 등)에게는 박람회의 이미지와의 직접적인 연상효과에 의한 기업 이미지 업은 물론 관람객들의 입으로 전파되는 구전효과 및 홍보매체에 의한 간접홍보로 전 세계의 수요자에 크게 어필하여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
- 개최지역에게는 전 세계에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상품이 알려지면서 지역특성산업, 관광산업 진흥의 전기가 이루어진다. 또한 박람회 개최준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SOC등의 확충은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뿐 만 아니라 고용창출 확대로 이어지고, 전 세계와의 교류확대와 정보교류는 지역의 인적자원을 고급화시켜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 '99중국곤명국제꽃박람회는 중국의 낙후된, 폐쇄적인 이미지를 일신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화훼부문에서 중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 및 발전수준을 명확히 인지시켜, 자국의 관련 산업 발전촉진 및 외국인직접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윈난성은 '99곤명대국제원예박람회를 계기로 인근의 절경을 이용한 관광개발, 화훼산업시설 현대화, 전통 향료를 새로운 3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3억 \$를 투입한 바이오 하이테크밸리(中華 生物谷) 프로젝트로 세계적인 관광, 생약제약 및 화훼산업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 전 세계적인 추세는 박람회를 단순한 투자 대비 수익의 근시안적 관점이 아니라 개최를 통해 그 파급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하여 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¹⁾

1) 충청남도, 2002,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 활용방안.

II.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현황과 파급효과

1. 배경 및 의의

1) 기본이념

- 급속한 산업화추진과 경제성장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간은 점점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어 가고, 꽃에 대한 애정과 꽃을 가까이하는 마음의 여유마저 잃어가고 있다.
- 그리하여 인간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정서의 눈을 일깨워 주었던 꽃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애착심과 감동을 주며 상업화의 그늘 속에서 메말라가고 있는 인간성의 회복을 추구하고 현대생활에 알맞은 새로운 꽃 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풍요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자유로운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한국인의 꽃에 대한 애정과 문화를 세계에 알려 우리나라 화훼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또한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세계적인 송림인 안면송의 자연휴양림을 배경으로 천혜의 모래사장이 널려있는 안면도 해변을 꽃과 바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자연을 만끽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환경친화적인 국제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서해안 국립해양공원의 아름답고 독특한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다.

2) 꽃박람회 개최 배경 및 의의

-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이다. 특히 화훼산업은 세계 각국에서 최첨단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인식, 「꽃의 전쟁」이라 불릴 만큼 화훼신품종 개발 및 자생종 유전자 보호·육성 등에 전념하고 있다.
- 꽃박람회는 문화·관광과 지식산업이 종합되는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의 총아로, 선진국들은 꽃박람회 유치를 통해 화훼신품종 개발촉진, 자생종 화훼상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관광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화훼산업의 발전 및 관광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의 화훼선진국들은 꽃박람회를 계기로 화훼산업 및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했다.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자생화를 중심으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한국 화훼산업 발전 및 꽃수출의 획기적 계기 마련하고 세계시장에서 한국화훼상품의 이미지를 높여서 수출단가상승으로 채산성을 향상시키고, 마케팅력을 제고하여 세계화시장 점유율을 높여줄 것이다.
-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계기로 가입한 UPOV(국제신품종보호연맹)의 규정에 따른 권리보호 촉진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화훼 신품종개발을 촉진하여 식물 유전자부문의 투자와 기술개발도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또한, 꽃을 주제로 문화·관광·서비스 등 연관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안면도 지역을 꽃과 청정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문화 관광의 명소로 개발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세계최대의 관광 수요국이 될 중국을 비롯한 화교권 관광객을 마케팅 타겟으로 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2.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 현황

1) 꽃박람회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KOREA FLORITOPIA 2002」
- 장 소 : 태안 안면 송언리 꽃지/휴양림 일원
- 면 적 : 793,390m²(24만평)
- 행사기간 : 2002. 4. 26~5.19(24일간)
- 주 제 : 「꽃과 새문명」 - 부 제 : 「바다에 물든 꽃」
- 성격 및 유형 : 국내 최초의 AIPH 국제공인 꽃박람회
- 사 업 비
 - 행사장조성 : 29,611백만원(국비 12,250, 지방비 17,361)
- 주 최 : 충청남도
- 주 관 : (재)안면도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
- 운영인력 : 1,655명 (조직위 79명 충청남도 94명, 유관기관 425명, 자원봉사자 및 해병전우회 등 1,057명)

2) 꽃박람회 관람 및 참가국 현황

- 관람인원(명)

계	내 국 인				외국인
	소 계	일 반	학 생	무료입장	
1,646,084	1,623,044	1,273,682	273,369	75,993	23,040

○ 전시 참가국 현황

대 록 별	국가수	참 가 주 체 별			비 고
		계	정부·자치단체	업체	
합 계	31	88	19	69	
아 시 아	10	38	13	25	일본, 중국, 태국, 인도,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리아, 스리랑카, 대만
유 럽	10	36	3	33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덴마크
북 미	2	4	1	3	멕시코, 미국
남 미	5	5	1	4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 에콰도르
아프리카	2	2	-	2	남아공화국, 모리셔스
오세아니아	2	3	1	2	호주, 뉴질랜드

○ 정부 및 자치단체

구 분	참 가 국(단체명)
중앙정부(5)	독일, 네덜란드, 멕시코, 베네수엘라, 몽골리아
자치단체(14)	오스트리아 Vinna, 호주 South Australia 중국 福建省, 廣東省, 雲南省, 山東省, 河北省, 연변邊白沿州, 泰安市, 大連市 일본 靜岡縣, 兵庫縣, 熊本縣 스리랑카 Kuliapitiya Predeshiya Sabha

-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람객은 1,646,084명으로 집계되었다. 총 24일간 개최된 꽃박람회의 관람객 유치는 집객규모 측면에서 당초 목표인 72만 명의 약 2.3배를 초과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관람객 유치로 평가할 수 있으며, 관람객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관람객 유형별 현황

구분		입장객		비 고
		명	%	
합계		1,646,084	100.0	
유료입장객		1,570,091	95.4	입장권 판매실적 : 1,684,966명 - 예매 587,841명, 현장판매 1,097,125
개인	소계	456,462	27.7	
	일반	399,722	24.3	
	학생	56,740	3.4	
단체 할인	소계	592,691	36.0	
	일반	531,083	32.3	
	학생	61,608	3.7	
특별 할인	소계	496,855	30.2	
	일반	340,636	20.7	65세 이상, 장애인
	학생	156,219	9.5	수학여행단
외국인		23,040	1.4	
기 타		1,043	0.06	전 기간권, 마라톤할인권
무료입장객		75,993	4.6	
방문인사		5,951	0.4	
기 타		70,042	4.3	공연단, 전시·영업지원, 보도 등

3.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파급효과

1)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파급효과

- 꽃박람회는 문화관광과 지식산업이 종합되는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의 총아로, 선진국들은 꽃박람회 유치를 통해 화훼신제품 개발촉진, 자생종 화훼상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관광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화훼산업의 발전 및 관광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 효과로 지역 화훼산업의 재배기술력 제고 및 화훼 판매의 매출 증대효과를 가져오고, 박람회장의 명소화를 통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관광·서비스 산업의 발전효과가 있었으며, 나아가 연관산업의 파급효과를 통해 지역의 고용증대 및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다.

- ① 화훼수출 기반 확대 : 박람회 기간 총 4,617천불 수출계약
- ②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 4,400억원, 소득유발 1,000억원, 부가가치유발 2,000억원, 고용창출 9,000명
- ③ 국내 화훼기술 선진화 : 신품종 개발(9화종 110품종), 개화시기 조절 등 농가에 신기술 보급
- ④ 낙후지역 개발 촉진 : 도로확충·항만 보강(국비 1,348억원 투자), 환경기초시설 등 SOC 확충
- ⑤ 국제교류 확대 및 도정역량의 국제수준 제고 : 꽃박람회와 함께 국제환경포럼, 국제지적포럼 개최
 - 국제환경포럼(2002. 5. 14~5. 17) : 아산 그랜드호텔, 100명(일본 24, 중국 9, 국내 67)
 - 국제지적포럼(2002. 5. 14~5. 16) : 안면도 롯데오션캐슬, 400명(일본, 대만, 한국)

<표 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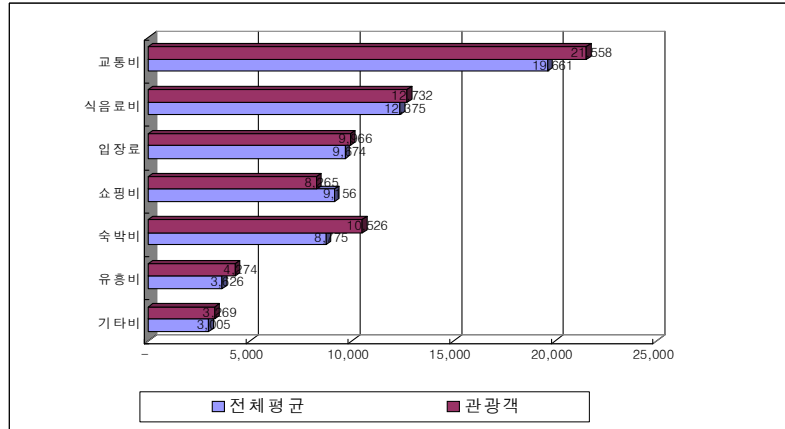
구 분		개 최 전	개 최 후
박람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참가 유치 : 30개국 170개 업체 관람객 유치 : 72만명 수익사업 : 109억원 화훼수출: 2,000천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참가 : 32개국 178개 업체 관람객 : 164만명(목표대비 228%) 수익사업 : 217억원, 화훼수출: 4,617천불
파급효과	도 내 화훼산업 발전	799농가 517ha, 수출 2,398천불('98)	978농가 642ha, 수출 5,788천불('02년 잠정)
	도 내 관광산업 발전	관광객수('01. 2/4분기) : 19백만명	관광객수('02. 2/4분기) : 22백만명
	지역 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 4,400억원, 소득유발 1,000억원, 부가가치유발 2,000억원, 고용창출 9,000명
	낙후지 개발	안면도 교통접근성 불리, 관광시설 미흡	4개 노선 33.6km 확장·신설, 영목항 보강, 용수·환경시설 확충, 미관 개선 등

2)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방문객 평균 소비지출액

-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방문객들의 평균 지출비용을 '교통비', '식음료비', '입장료', '쇼핑비', '유흥비', '기타비'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산출한 결과 전체합계평균비용이 66,272원으로 나타났다.
- 항목별 평균 소비지출액은 교통비가 가장 많은 19,661원으로 나타났으며, 식음료비 12,375원, 입장료 9,674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쇼핑비가 9,156원으로 나타났으며, 숙박비는 8,775원, 유흥비는 3,626원으로 나타났고, 그 외 기타비용은 3,005원으로 나타났다.

(단위 : 원)



[그림 1] 방문객 평균 소비지출액

- 지역주민(충남)과 관광객으로 나눈 방문객 그룹별 소비지출 비교에서는 관광객이 70,587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은 53,917원으로 나타나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객들의 현지 주유비, 숙박비, 유흥비 등의 지출로 분석되었다.

<표 3> 방문객 그룹별 평균 소비지출액

항 목	지역주민(충남)	관광객	전체평균
교 통 비	14,236원	21,558원	19,661원
식음료비	11,149원	12,732원	12,375원
입 장 료	8,969원	9,965원	9,674원
쇼 핑 비	11,690원	8,265원	9,156원
숙 박 비	4,012원	10,526원	8,775원
유흥비	1,855원	4,273원	3,626원
기 타 비	2,087원	3,268원	3,005원
합 계	53,917원	70,587원	66,272원

(2) 꽃박람회에 의한 충남지역 승수효과 추정

-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전체관광객들 중 단위방문객과 항목별 평균소비지출액을 산출한 결과 전체관광객 총소비지출액은 약 82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분야별로는 음식업이 164억원, 소매업은 121억원, 도로여객운송업은 지역외 누출을 차감하고 208억원, 숙박업 116억원, 기타 문화오락 서비스업은 216억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전체관광객 총소비지출액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별 분류	지역외 누출을 차감한 관광객 총 지출액 (원)
음 식 업	16,416,774,000
소 매 업	12,146,422,848
도로여객업	20,865,951,910
숙 박 업	11,640,985,200
기타문화오락서비스업	21,630,343,440
총 계	82,700,477,398

- 꽃박람회의 개최로 '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충남지역 생산파급효과는 808억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5> 관광객 소비지출로 충남지역에 미친 생산파급효과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별 분류	지역외 누출을 차감한 관광객 총지출액 (원)	업종별 생산유발계수	관광객에 의한 충남지역생산파급효과 (원)
음식업	12,161,071,656	1.3282	16,152,335,373
소매업	7,894,380,870	1.1813	9,325,632,122
도로여객업	16,473,036,931	1.1786	19,415,121,327
숙박업	10,053,993,108	1.2068	12,133,158,883
기타문화오락 서비스업	16,721,951,106	1.4252	23,832,124,716
총 계	97,422,692,904	-	80,858,372,421

-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전체관람객 지출과 약 1천 9백억원의 SOC 투자비, 291억여원의 박람회 사업비로 인해 창출된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약 4천 4백억원, 소득유발효과가 약 1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천억원, 약 9천명의 고용유발효과로 분석되었다. 4천 4백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되었다. 4천 4백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되었다. 4천 4백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되었다.

<표 6>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충남지역에 유발한 총 파급 효과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관람객 지출에 의한 유발효과	총투자비에 의한 유발효과	총 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105,620.7	332,448.1	438,069.8
소득유발효과	27,458.8	73,625.1	101,048.0
부가가치유발효과	55,956.7	144,037	199,993.6
고용유발효과	3,075	5,907	8,982

3) 지역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분석

(1) 관광개발 효과

- 태안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많은 해수욕장을 가졌지만, 낙후된 기반시설과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의 이미지에서 2002년 꽃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기반시설의 확충과 165만여명의 전국적인 관광객이 단기간 집중하고 전국적인 방송매체를 통한 노출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 관광지로 인식시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단순한 해수욕장의 이미지에서 ‘꽃과 어우러진 해수욕장’으로 변모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확보하였다.

-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로 인한 태안지역의 ‘관광개발효과’를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이 느끼는 관광개발효과는 ‘유명 관광지로 인식시킴’, ‘여름철 관광객 증가’, ‘호텔 및 숙박시설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TV를 통한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고 주요 방송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영된 꽃박람회 개막식 등을 통해서도 안면도를 유명 관광지로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거리감이 해소된 것도 태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들이 여름철 이외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계절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꽃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여름철 관광객 유입요소인 해수욕장 이외 ‘꽃과 어우러진 바다’의 부가가치는 봄철과 가을철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꽃박람회에 의한 ‘후광효과(Halo Effect)’가 있었다.
- 태안지역은 30여개의 해수욕장이 집중한 우리나라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의 환경임에도 주로 여름철에만 4백여만명의 관광객이 집중하는 비·성수기가 뚜렷한 관광객 방문 특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광시설의 개선과 투자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한다. 여름철에 집중하는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관광수익 창출면에서는 장애요인이다.
- 그러나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기존 뚜렷한 관광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태안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종합적으로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통한 관광개발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태안지역의 유명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향상, 관광객 수용시설의 확충, 관광지로서 지역민들의 기대감 향상 등이 두드러진 관광개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개발 효과

-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로 인한 화훼산업, 도로시설, 미관개선에 의한 지역 발전 등 3개 부문에 대한 조사결과 3개 부문 모두에서 60%이상의 긍정율로 나타났다.
- 꽃박람회로 인한 지역개발 효과는 안면도를 비롯한 태안의 ‘전체적인 미관 개선’, ‘도로개선’, ‘안면도(태안)의 화훼산업 발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꽃박람회 개최로 인해 박람회장으로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진입도로 확장 공사, 해안관광도로건설, 진입도로의 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 가로등 배너 설치, 꽃길 조성사업, 종합주차장 설치 등 진입도로 주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의 불량주택정비, 빈집정비 등으로 안면도를 비롯한 태안지역의 전체적인 미관이 개선되었으며, 낙후지역의 이미지에서 ‘꽃의 고장’으로의 특화 이미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 또한, 꽃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개통된 해안관광도로(9.8km구간)는 안면도내 백사장-삼봉-기지포-안면-두여-빛개-방포-꽃지해수욕장을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피서철 때마다 안면도내 9개소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한 국도 77호선(태안-안면도)의 교통혼잡을 덜고 4차선(홍성IC-갈산-서산 A,B 지구 방조제-안면 연육교-해안관광도로-꽃박람회장) 개통 효과를 보게 되었다. 이로써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수산물 운반 등이 수월해져 지역주민의 관광수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안면도 해안관광도로는 꽃박람회를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을 비롯한 2,000만 수도권 및 중부권 배후 관광지로 안면도가 다시금 급부상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힘입어 호남·수도권에서 2시간이면 안면도에 도착할 수 있어 그 동안 개발지역에서 소외됐던 안면도 지역의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 한편, 이러한 도로의 기능수행과 함께 해안관광도로는 꽃박람회를 계기로 꽃박람회장, 해수욕장, 사구와 드넓은 바다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들의 공식 관광코스도 급부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태안지역에 화훼농가는 실제로 군공무원 면접결과 꽃박람회 개최로 인한 혜택 1순위로 태안지역 화훼농가를 지목하였다. 태안지역에 화훼농가는 350호로 충남지역의 40%에 해당하고 있으나 그 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으며, 꽃박람회를 통해 화훼집산지로서 태안지역 화훼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태안화훼산업의 국제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표 7> 안면도 꽃박람회의 지역개발효과

구 분	지 역 개 발 효 과
진입도로 경관 조성	행사장 북측 진입로
	- 약 1.3km의 보도, 중앙분리대 등의 가로수 식재
	- 입구 상징조형물, 가로등 배너, 길이확분 설치
	해안관광도로
	- 약 500m 북측 진입로 접속 부분에 가로등 배너 설치
	- 박람회 엠블렘을 이용한 꽃 탐 설치
	해변도로
박람회장 주진입도로 확충	- 오션 캐슬과 박람회장간 400m 공하지에 유채파종
	- 가로등 배너 설치
	33.6km 4차선 도로
	해안도로를 제외한 전 구간 대상 확포장 실시
	해안관광도로 확충

- 꽃박람회 기간 중에도 지역화훼농가의 구체적인 수출논의가 이루어졌다. 꽃박람회 개최에 앞서 초화류의 위탁재배로 기술향상과 2002년에만 태안군 3억 투자로 지역 내 계약재배를 통해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화훼산업 기여측면은 지역화훼 전문가 면접에 의하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재배력 향상’으로 꽃박람회 개최에 대비하여 지역화훼 농가들이 위탁받은 화훼를 꽃박람회 기간 중 개화시키기 위해 개화조절 노하우를 습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농업진흥원과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함으로써 개화시기 조절기술 등 고급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 둘째, 꽃박람회에 쓰일 꽃들을 박람회조직위에서 지역화훼농가에 위탁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하였다.
 - 셋째, 당초 200만 불을 목표로 설정한 수출 계약고가 폐막일 461만 불로 우리나라 연간 수출고의 20% 수준을 달성함으로써 꽃박람회에 의한 국내파급 효과와 별도로 태안군의 경우 호접란, 신비디움 등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외국바이어들의 높은 관심과 화훼선진국들은 태안군의 화훼생산력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전반적인 ‘태안군 화훼산업의 교역기회 확대’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3) 군민의식 함양효과

-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통한 군민의식 함양효과를 조사한 결과 ‘자부심 강화’가 4.74로 긍정율은 45.7%를 차지하였으며, ‘질서·친절의식이 높아짐’ 항목에서는 4.5로 비교적 낮은 긍정치로 나타났다.

-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꽃박람회의 준비에서 진행에까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외지방문객을 맞이하는 친절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자원봉사자 435명과 1,000여명의 지역단체회원과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관광객들이 편하게 꽃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경운기운행을 자제하고 관광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등 높은 질서의식과 친절의식을 보여주었다.

(4) 문화·예술 진흥 효과

-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 효과를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행사의 증가’가 4.15로 나타났으며, ‘문화의식 수준의 향상’은 4.05로 매우 낮은 긍정치를 나타냈음. 반면, ‘고유 전통문화의 보호’는 3.8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통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예술행사와 수준 높은 전시 행사들을 제공하여 꽃박람회를 찾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많은 방문객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유 전통문화의 향상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꽃박람회 기간 중 하루 두 차례 씩 주전시장 내 꽃지 이벤트 무대에서 펼쳐진 내셔널데이 행사에는 해외 자치단체들의 민속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져 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 민속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가 있었으며, 충청남도 의 시·군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충청지역의 문화예술공연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안지역의 고유 전통문화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 꽃문화 향상 기여도 평가

-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방문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꽃박람회 방문 후 ‘꽃에 대한 관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꽃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답해 개최당시 표방한 ‘국민의 꽃 사람 문화를 정착’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입장수입, 관람객 초과유치 등 계량적인 목표치 달성이외 꽃 문화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당초 관람객 72만명을 초과하는 165만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이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 더욱 확산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전체관람객을 대상으로 꽃박람회 개최로 꽃에 대한 관심변화를 설문한 결과 전체관람객의 78.2%가 중간 이상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방문객은 8.6%에 불과해 ‘꽃에 대한 관심 증대’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59.7%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15.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낮은 긍정치로 나타나 지역주민보다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관람객 면접결과 ‘꽃과 새문명관’과 ‘무궁화관’의 꽃전시가 꽃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꽃과 새문명관’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주제를 반영하는 주전시관으로써 꽃과의 만남, 인간과 꽃, 꽃과의 교감, 미래정원 등 4개의 Zone으로 구성되었다. 각 구역은 우리나라의 꽃문화를 소개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특히, 국내최초로 시도되는 사이버 터널에서 선보인 ‘영상 꽃비는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탄성을 자아냈다.

- 관람객들은 정교하고 화려한 꽃 장식을 접한 후 본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꽃과 환경을 조화한 실내장식의 기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응답을 함으로써 금번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꽃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각 전시관명을 ‘금강초롱관’, ‘무궁화관’, ‘코스모스관’ 등 우리나라 꽃 이름을 부여한 것 역시 관람객들에게 꽃 문화에 대한 관심증대와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관람객 조사결과 ‘꽃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가 평균 5.35로 나타났으며, 전체응답자의 74.6%가 긍정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나 꽃박람회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꽃문화에 대한 교육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대규모 관람객 유치와 기간 중 다양한 매체에 노출면서 범국민적 꽃 문화 교육효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서울에 사는 한 가족단위 방문객은 ‘야생화관’은 살아있는 식물사전 같아 어린이들에게 현장교육의 효과가 크다며 매발톱, 금낭화 등을 인상적인 전시물로 지목하였다. 관람객들은 희귀한 꽃과 다양한 꽃전시 관람으로 꽃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 특히, ‘코스모스관’의 경우 특이 꽃이 다수 전시된 관으로 지목하였다. ‘무초’, ‘김정일화’, 멕시코, 에콰도르의 꽃 등은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꽃과 다양한 신품종 꽃들이 전시된 관으로 관람객들이 꽃에 대한 정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II.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계획

1. 행사목적과 의의

1) 개최목적

- 2007년 12월 7일 서해안 기름유출피해로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의 급격한 침체와 국제 화훼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내 화훼농업의 경쟁력 약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태안유류피해지역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화훼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천혜 자연의 보고인 안면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관광개발을 촉진하는데 있다.

2)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KOREA FLORITOPIA 2009)
- 기 간 : 2009. 4. 24(金)~5. 20(水), 27일간
- 장 소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송언리 꽃지·수목원일원
- 주 최 : 충청남도·충청남도 개발공사
- 주 관 : 재단법인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 후 원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태안군,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사)한국화훼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주 제 : 꽃, 바다 그리고 꿈(Flower, Ocean & Dream)
 - 부 제 : 꽃으로 풍요로워지는 생활
- 100萬 자원봉사자의 감동과 태안의 미래
- 회장규모 : 793,390m²(약 240,000평)
- 관람예상 : 1,100천명(일평균 40,741명, 일최대 81,482명)
- 참가예상 : 국내·외 121개 지자체 및 업체
 - 해외 56, 국내 65(전국 16시·도, 충남 16시·군, 업체 등)
- 사업내용 : 전시, 이벤트, 교역, 학술, 체험 등

2. 박람회의 의의

- 서해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참여행사 추진
- 국제행사에 걸맞은 시각적 컨셉을 상징적으로 연출

해외유치

▶ 화훼업체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중심 유치

실외연출

▶ 꽃의 정적표현을 탈피 테마중심의 동적 연출

실내연출

▶ 호기심 충동, 킬러 콘텐츠 발굴 기획전시 확대

- 국경을 초월한 꽃사랑문화 확산과 환경보존 의미 부각

국제행사

▶ AIPH 국제공인,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생태복원

▶ 기름피해복구 자원봉사자 활약상 등 연출

- 우수한 화훼정보 교류를 통한 수출 촉진,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

3. 꽃박람회 전시연출

- 꽃과 바다의 어울림, 안면도의 아름다움을 컨셉으로 하는 주제관, 꽃의 미래관, 꽃의 교류관 등 7개의 실내전시관이 있다

<표 8> 전시연출 계획

구 분	내 용
플라워 심포니관 (주제관)	- 백만 자원봉사자를 상징하는 100만 송이 꽃과 노래에 맞추어 춤추는 꽃, 공룡식물 등 희귀식물을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전시·연출
꽃의 미래관	- 전국 16시·도, 충남 16시·군, 3개 연구기관 참여 - 자치단체별 기획전시로 전국의 다양하고 신비한 꽃 전시
꽃의 교류관	- 국내외 84개 기관·업체참여 - 우주꽃, 파란 카네이션 등 세계의 신품종 및 유명 꽃들을 비교·전시
야생화관	- 전국각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희귀한 야생화 및 번이종 등을 석부작, 목부작, 분경 등으로 다양하게 연출하여 전시
꽃음식관	- 우리나라 전통의 꽃 음식 전시·연출, 현장에서 꽃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시식도 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운영
농협관	- 꽃을 주제로 하는 삶과 농업을 홍보하는 전시공간 활용
양치류전시관 (수목원)	- 헤고, 공작고사리 등 특색 있고 관상가치가 높은 양치류 중심 전시

- 각각의 행사장은 의미가 있는 15개의 야외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박람회와 차별화로 일반인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관람객을 유치한다.

<표 9> 행사장 조성계획

구 분	내 용
바다정원	- 조선시대 어선을 재현 고기잡는 모습을 연출하고 뱃고동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등을 음향효과로 생동감 있게 연출
숫대정원	- 여러 모양의 숫대와 장승을 안면송으로 제작하여 박람회 성공을 기원하고, 관람객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은 정원
소망의 정원	- 기름유출사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하는 소녀와 소망을 담은 어인상을 토피어리로 제작 설치
일출정원	- 태양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6만여본의 톨립과 국화로 연출
동화 이야기속으로	- 이야기를 소재로 한 꽃 조형물을 설치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연출(신녀와 나무꾼, 숨바꼭질 등 4개)
톨립원	- 16종, 181천본의 톨립단지로 조성, 회장의 이미지 극대화
꽃과 나비정원	-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을 이용하여 꽃과 나비모양으로 디자인하여 형상화한 정원
파도정원	- 로벨리아 등 13만본의 보라와 흰 꽃을 이용 바다물결 모양으로 형상화하고, 대형 꽃 돛 2개를 설치하여 연출한 정원
바닷길 정원	- 충청남도 등 16개의 시·도를 상징하는 꽃배 16척을 제작하여 연못에 띄워 대양을 향해 전진하는 이미지로 연출한 정원
장미원	- 32종의 다양한 장미를 아름답게 식재하여 연출한 정원
조롱박 터널	- 70m의 터널에 13종의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가진 조롱박을 식재하여 아름답게 연출한 정원
꿈꾸는 소녀	- 여러 가지 초화류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꽃밭에서 누워 꿈꾸는 소녀의 행복한 모습을 길이 10m의 대형 외상으로 연출
분재원	- 전국의 분재애호가들이 소장한 진귀한 분재 전시를 통해 아름답고 놀라운 분재예술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정원
허브원	- 웰빙과 관련 있는 13종 6만여본의 다양하고 화려한 허브를 재배,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연출한 정원
태극 정원	- 태극 모양의 무늬와 꽃잎을 꽃으로 식재 연출한 정원
수목원 지구	- 안면송과 어우러진 철쭉원 등 20개원으로 구성된 숲속의 테마정원

4. 주변지역 연계 관광계획

- 꽃박람회 개최기간에는 충남의 관광지 30개소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할인하여 줄 계획이다.
- 특히, 회원들의 방문한 허용되었던 천리포수목원도 이번 꽃박람회 기간중에 일반인들에게 입장료를 할인하여 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표 10> 충남 관광시설 할인 계획

지역	대상 시설명	구분	할인율(%)	비 고
천안(1)	독립기념관	주차료 할인	33~50	입장료 무료
공주(8)	마곡사	입장료	50할인	
	계룡산자연사박물관	입장료	11~20	
	웅진초등교육박물관	입장료	20	
	공주민속극박물관	입장료	20	
	임림미술관	입장료	25~50	
	이안숲속	입장료	17~33	
	갑 사	입장료	25~42	
아산(3)	신 원 사	입장료	50	
	민속박물관	입장료	20~33(1,000 원 할인)	단체 할인 없음
	피나클랜드	입장료	20~33(1,000 원 할인)	단체 할인 없음
부여(3)	세계꽃식물원	입장료	20	개인만
	백제역사문화관	입장료	무료관람	도시설
	서동요테마파크	입장료	100	무료
청양(1)	부여공충나라	입장료	20~25	
홍성(1)	고운식물원	입장료	20	단체는 미적용
예산(6)	그림있는정원	입장료	20	
	세심천온천호텔	객실요금(2인1실)	33	
	가야관광호텔	객실요금	30	
		온천욕	27	
	한국고건축박물관	입장료	30	
	추사고택	입장료	100	무료입장
	충 의 사	입장료	100	무료입장
	스파캐슬	객실요금 등	37~58	
		음식점	전 상품 10% 할인요금	수퍼마켓 제외

지역	대상 시설명	구분	할인율(%)	비 고
태안(5)	천리포수목원	입장료	17~44	기존 어린이 단체는 받지 않음
	오कि드타운	식물원입장료 등	25~40	입장고객 모두에게 란 or 허브식물 1화분씩 무료증정
		식당(꽃밥)	14	
		숙박요금	20~30	
	패총박물관	입장료	무료입장	
	팜 카밀레	입장료	20~40	
당진(2)	오션캐슬	숙박요금 등	37~58	
		음식점	전 상품 10% 할인요금	수퍼마켓 제외
	삼교호관광지	주차료	50	
	삼교호합상공원	입장료	40	

<표 11> 충남 자연휴양림 할인 계획

지역	대상 시설명	구분	할인율(%)	비 고
도유(2)	안면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금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국유(3)	희리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2009년 산림청 고시를 통하여 할인조치
		시설사용료	시설별 사용료의 50%할인	
	오서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시설사용료	시설별 사용료의 50%할인	
	용현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공유(6)	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시설사용료	시설별 사용료의 50%할인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성주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개인)	면제	
사유(1)	남이자연휴양림	입장료	50	
	진산자연휴양림	숙박료	5	

IV. 국제꽃박람회 연계 지역발전 전략

1. 기본방향

- (1) 꽃박람회를 청정 서해안지역으로 이미지를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
- (2) 꽃박람회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로 태안과 서해안 관광객 유치 촉진
- (3) 꽃박람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화훼산업의 육성
- (4) 국제꽃박람회 홍보를 극대화한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 (5) 태안을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전략적 지원 육성

2.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

-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통해서 태안의 지역이미지를 청정이미지에서 환경중심지(청정한 자연, 환경교육 중심지 : 재난극복, 승리, 녹색성장 중심지)로 이미지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 유류유출사고를 계기로, 태안은 단순복구가 아닌 지역재생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다양한 자원적 요소를 반영하고, 유류유출로 얻게 된 새로운 정통성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이미지 만들기(image making)가 가능하도록, 이미지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마케팅의 소재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 이런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태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인지도가 높은 안면도 꽃박람회와의 연상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꽃의 이미지를 노출시켜 태안의 이미지를 개선한다.
- 또 하나는 기존의 청정이미지를 재난극복의 중심지, 환경 교육의 중심지, 청정한 자연을 아우르는 환경과 생태의 중심지로 이미지를 전환하는 것이다.

3. 꽃박람회 연계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촉진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기간 중이나 개최 후에도 꽃박람회장을 지역의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안면도 꽃박람회장을 활용하고, 주변지역을 연계하도록 지역관광자원화와 지역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 안면도관광개발에 있어서 자연휴양림과 꽃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안면도꽃박람회장, 안면도 국제 관광지 및 지포지구 관광지 조성과 함께 관광거점지역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해야 하겠다.
- 따라서 태안 관광개발의 구상에 있어서 자연자원 및 경관감상 관광, 체험위주의 생태관광, 역사·문화자원 중심의 학습관광, 농어촌 민박중심의 녹색관광, 수산물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어촌관광, 관광루트·프로그램·이벤트 개발 등을 추진하여 안면도꽃박람회장, 안면도 국제 관광지로 조성하고, 이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전략으로는 해수욕장의 계획적 관리와 개발, 특색 있는 관광항포구 개발, 어촌체험 관광개발, 생태 관광, 녹색관광을 통한 민박의 활성화, 지역전통문화의 관광이벤트 및 상품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 꽃박람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화훼산업 육성

- 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에는 화훼기술 습득과 정보 교류,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 기여, 화훼산업의 국제교역 증진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계기로 하여 태안군을 중심으로 충남지역의 화훼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화훼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첫째, 충남 서해안지역과 태안을 중심으로 화훼산업 중심지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태안군과 서해안은 해양성 기후가 발달한 해안지역으로서 기존 농가의 화훼재배가 발달되어 있을 뿐더러 해안에서 자생하는 식생들이 많고, 주변의 천리포수목원과 백합시험장, 청산수목원, 오기드타운 등 화훼산업 기반이 양호하므로 이와 연계한 전략적 화훼중심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 둘째, 화훼기술개발을 위한 집중투자와 꽃박람회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지속적이지 못하면 일시적인 홍보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효과만 나타날 뿐이므로 화훼기술을 태안군이나 충남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기술개발 투자와 화훼관련 이벤트 행사가 지속되어야 한다.
- 셋째, 서해안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화훼물류·유통단지의 조성과 화훼재배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국제꽃박람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꽃박람회 개최지인 꽃지지구 앞으로 안면도국제관광지로 조성되어야 할 부지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태안의 화훼집산지와 접근성이 양호한 적정한 입지를 발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해안 화훼물류·유통의 중심기능을 위한 화훼물류단지와 인접한 화훼재배단지에 국제꽃박람회장을 조성하여 앞으로 정기적인 꽃박람회를 민간주도형으로 개최토록 해야 한다.

5. 국제꽃박람회 홍보를 극대화한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태안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차원에서 꽃박람회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한 지역관광개발을 위하여 Hardware와 Software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건설된 도로, 숙박시설 등 물리적 시설을 중심 거점으로 하여 충남의 서해안권과 내륙의 온천관광지, 백제문화권의 역사문화관광지와 연계되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 주요 지역을 연계하는 관광루트로는 서울-당진-홍성-안면 꽃박람회장, 천안-아산-안면 꽃박람회장, 대전-공주-청양-홍성-안면 꽃박람회장, 대전-논산-부여-보령-안면 꽃박람회장, 군산-서천-보령-안면 꽃박람회장 등으로 다양하게 관광코스를 만들고 여행사와 연계하는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 또한, 해양관광시대를 대비하여 해안유람선을 통하여 보령 대천항과 인천항 등 유람선 운항으로 연계하는 보령↔영목항, 보령↔백사장포구/방포 유람선 운행, 군산/장항항↔영목항, 군산/장항항↔백사장포구/방포 유람선 운행, 인천↔영목항, 인천↔백사장포구/방포 유람선 운행 등을 장기적으로 관광코스화한다.
- 특히,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 주변은 내포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포문화권 개발과 관련하여 내포지역의 테마관광루트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포의 문화체험으로 제작실습체험, 전통문화체험, 종교문화체험, 전통생활체험, 농·어촌생활체험 등의 관광상품개발을 개발하고, 생태관광상품으로 서해안 갯벌생태관광, 간월호 철새관찰 등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 그리고, 내포인물탐방, 불교문화탐방, 내포천주교 성지순례, 내포문학탐방, 내포민속문화답사 등의 다양한 특수목적의 문화·관광상품도 서해안 연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6. 태안을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전략적 지원 육성

-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환경오염에 의해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환경교육이 가능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이다. 또한 사고의 주변 지역에는 환경과 생태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환경관광자원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생태·환경관광명소로 육성이 가능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 환경기구에 의한 ‘국제환경회의’의 개최도 추진되어야 한다.
- 생태·환경관광은 교육적·설명적 요소를 갖추어 참가자가 환경에 대해 자신이 미치게 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적·설명적인 프로그램인 환경관광은 방문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지적·감정적인 자질과 함께 육체적·정신적인 도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 이러한 생태·환경관광의 필요성은 자연자원의 오염 및 훼손을 사전예방하고 오염·훼손된 자연을 복구하여 자정 및 재생기능을 갖도록 하며 또한 세대 내, 세대간에 관광자원의 편익기회를 제공하고, 그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태·환경관광’의 전략적 추진으로 ‘유류유출’을 계기로 태안군을 생태·환경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오염의 극복과 침체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마련
 - 국제 환경기구에 의한 ‘환경관광명소’로 육성하여 국제환경단체와 기구 등이 참여하는 ‘국제환경생태관광’ 사업 추진

이 인 배, iblee@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장
 Tel. 041-840-1103

◆ 참 고 자 료 ◆

1.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2001,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지역발전.
2. (재)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2009,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
3. 충남대학교,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충남 화훼산업발전.
4. 충청남도, 2002,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 활용방안.